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오찬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드
려지기를 소원합니다.

3. 주보

오늘부터 다시 종이 주보와 온라인 주보를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4. 카톡 채널 안내

외부에서 저희 교회소식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카톡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가입하셔서 교회소식등을 매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
리겠습니다.

지난 주 (11/13)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US\$1,496.43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전주은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0:23-11: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무엇을 하든지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1월 27일	12월 4일
이우선	윤원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1월부터 시작합니다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목회칼럼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로서 성도님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또 다른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설교 외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보를 새롭게 편집하면서 매주 목회 칼럼으로 성도님들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설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과 저의 단상을 부족하나마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또는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잡한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염려가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무언가 내 마음에 결정이 설 때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하나의 일에 마음을 확정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이란 다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어져서 여러 갈래로 나뉘지면 결코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할 때 내 마음에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감사의 이유를 환경이나 조건에 두지 말고 존재에 둡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시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